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34. 144000인

2013. 08. 25.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 맞은 자의 숫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7:3~8]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바르게 아는 것을 사단이 싫어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4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즉 실제수이냐, 상징수이냐 하는 논란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요?

답: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이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4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숫자를 말했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잡으라고 한 천사의 말인지, 인치는 천사의 말인지, 아니면 제 3의 누군가가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 숫자를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 수를 말한 다음에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숫자가 실제수이냐, 상징수이냐를 알기 위하여 먼저 거명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 목사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답: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압락 여울 가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지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지만 생명이 보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열 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이룬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파 수가 사실은 열 세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3. 예? 이스라엘이 열 두 지파가 아니고 열 세 지파입니까? 야곱의 아들이 모두 열둘인데 어떻게 열 세 지파지요?

답: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서 그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기업을 두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차지했지요. 그러니까 열 세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줄 때 열 두 지파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열 셋 중에 한 지파는 땅을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대로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기억하시지요?(레위 지파지요.)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3지파이지만, 12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인 주의 이름입니다. 미국 서부의 가장 북쪽에 있는 주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름을 붙인 주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붙인 각도로 분할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답: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12지파를 말하면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단 지파는 야곱이 단에 대하여 말할 때 길가에 뱀이요 지름길의 독사라고 했지요.(창49:17) 그래서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빠졌다는 설명도 있고, 에브라임은 교만해서 빠졌다고 말하고, 호세아서를 읽으면 에브라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아들들의 이름에 초점을 맞춘 설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2지파라고 하면 누구의 이름이 빠졌는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지요.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깐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빠진 이름에 대한 구구한 설명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지 않은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7장에 단이 빠졌든지, 에브라임이 빠졌든지 상관없이 12이름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13지파이지만 언제나 12지파라고 한 것은 12 안에 13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에브라임과 단이 빠진 대신에 레위와 요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기서는 요셉과 므낫세이지요. 단 대신에 레위가 들어갔습니다. 그 두 지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12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이스라엘이 13지파인데 12지파라고 한 것도 그렇지요. 야곱이 12 아들만 낳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의 반열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이 맞지요. 그런데 12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도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12 사람만 사도로 불렀습니다. 12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도 제자라고 했지요. 또 70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누가복음 10장의 기록도 있지요.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로 사도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게마트리아로 설명하면 3은 하나님 숫자이고 4는 세상 숫자이며, 하나님 수 보태기 세상 수는 7인데 완전수라고 하지요. 하나님 수, 곱하기 세상 수가 12입니다. 이것을 선택수로 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이고 실제로는 13지파이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지만 12제자만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지요. 이런 의미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암시적으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 번 봅시다.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수가 12이지요. 그래서 12를 선택수로 보는 것 같아요. 12지파는 선택된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6. 그러면 거기에 또 12000명씩 인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 이 숫자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이스라엘을 문자적 의미로 취급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합니다. (2) 이스라엘을 문자적 의미가 아닌 영적 의미로 해석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교회의 일반적인 이해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인 맞은 “십사만 사천”이 누구를 나타내느냐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1) 순교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2)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십사만 사천”도 문자적으로 인 치심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합니다. (3)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십사만 사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롬9:6~8과 11:25~27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구절을 한 번 읽어봅시다.

[롬9:6~8]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 곧 욱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롬11:25~27]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너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세 번째 견해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7장의 역사적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있는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계시록 해석을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위치한 역사적 위치를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장면은 여섯째 인을 떼 후에 역사적 시점에서 있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계시록을 설명해온 흐름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55년 이후, 1833년 별이 떨어지는 천연계 현상이 있고난 후에 어느 역사적 시점에 있을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은 역사주의적 이해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 후라면 늦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833년 후인데,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있었는지요?

답: 우선 이스라엘 12지파가 실제 이스라엘이나,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나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그러시지요.) 이제 학자들의 견해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견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름이 거명된 12지파도 실제적이라야 해석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맞습니다. 한 구절 안에서 하나는 상징으로 하나는 실제로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실제로 유대인이라면 12지파도 여기 이름이 나온 대로 12지파에서 12000면씩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저도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온 12지파가 사실상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조로 분열되었지요. 북방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남쪽은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레위인들로 국민이 구성되었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이 세 지파를 뺀 10지파가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 앗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국민들을 여기저기 흩어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령지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시켜서 실제로 북방 10지파는 그때 후로 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방 유다왕조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지역에 수용되면서 유다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없어지고 그냥 유다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44000이 실제 유다민족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12지파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144000은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상징이면 144000도 상징이어야 하고 144000인 실제이면 이스라엘 12지파도 실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제로 해석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상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8. 예,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깐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144000명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셔야 하겠습니까.

답: 그 숫자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실제 수라고 하는 견해는 들어볼 필요가 없지요. 숫자 그대로 실제수라고 하니까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대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 9장에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그 구절을 마지막 때 소위 7년 대환난 기간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실제수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 즉 상징수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역시 게마트리아 식으로 풀이하는데 그 풀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3 \times 4 = 12$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요. 하나님 수 3, 세상 수 4, 이것을 더하면 완전수 7이고 곱하면 선택 수 12라고요. 그리고 1000은 10을 충만 수라고 말하고요, 1000은 충만 수에 하나님 수인 3을 넣어서 세제곱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144,000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럴듯하지요? 상징수라고 할 때에는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9. 그러면 목사님은 그 해석을 인정하십니까?

답: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썬요?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징수라는 것은 저와 같은 견해입니다. 왜 상징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참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144000도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12지파도 이름이 기록된 그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진짜로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흠여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약1:1입니다.

[약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여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했지요.(롬2:28,29)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이잖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요. 그리고 각 지파도 그리스도인 전체 중에서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12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라고 하면 전 그리스도인들 중에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144000명은 그리스도인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 지파라고 생각되는 그 무리들 중에서 12000명씩 인을 맞는 것이지요. 그 이름이 어떤 경우를 상징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에 장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 중에서 그 지파에 특성을 살피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그 이름의 지파로 해석합니다만, 그런 해석은 상당히 자의적(恣意的)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해석을

취하지 않습니다.

10. 그것이 어떤 해석입니까? 한 번 말씀해보시지요.

답: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말로하자면 유다 지파는 왕족이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다 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목회자들이 아니겠나. 뭐 이런 식인 것 같던데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요. 고약하지요?(아니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11. 그러면 목사님은 144000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상징수라고 하는 데는 아까 말했고요. 그러니까 12가 선택 수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선택된 무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2지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말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또 선택된 무리들이라는 말로 봅니다. 12는 선택 수니까요. 그렇게 12 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하였으니까 그 수가 144000명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이 144000명입니다. 즉 144000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올바르게 잘 아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12. 아, 그렇습니까?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여섯째 인을 떼는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1833년 후가 아닐까 하셨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 일곱 교회 시대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는데,(계3:12)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긴다고 했지요. 그것은 144000명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시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그 후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3.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목사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